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제

충현의 만나

10

2001

가정예배 · 누가복음 · 아가서 · 요한복음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대한예수교
총회
충현교회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10

2001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 누가복음 · 아가서 · 요한복음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기 도 제 목

1.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고 그 복음을 따라 행하며 전하게 하소서.
2. 우리 교회가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3. 모든 교회 일꾼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4. 구역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이를 통해 교구가 성장하여 교회가 진정한 영적 부흥을 이루게 하소서.
5. 새벽기도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더욱 힘있게 하시고, 5부예배를 통하여 젊은 일꾼들이 복음 안에서 바르게 양육되게 하소서.
6.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는 일에 저희를 써 주소서.

10월의 코스모스



기차길 가에 코스모스가 피었습니다.

커다란 꽃잎,

그 무게를 견뎌야 할 연약한 가지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 꽃을 만드신 분께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님이여, 그 무게를 어떻게 견딜 수 있는 걸까요?”

그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볼들지 않으면,

잠시도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 버릴 것을!”

그리스도여,

그대 말씀이 옳습니다.

“꽃은 마르고 꽃은 시들은 여호와와 의 기운이 그 위에 불이라”(사 40:7)

이 세상에서의 삶은 코스모스와 같습니다.

세상의 명예, 감당할 수 없는 흔들거림이 있고

그 까닭에

인생을 지으신 분께 고백해 봅니다

“나의 구주여,

주를 사랑함마저도

하늘에서 볼드시는 은혜의 시간인 것을!”

그리스도여, 간구하옵나니,

연약한 가지 위에 아름다운 꽃 피우심 같이

우리 연약한 마음에

그대 미소, 머무르게 하여 주소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려 합니다.

여러 코스모스 한 송이에서도 그분의 손길을 느끼듯이,

그분이 기록하게 하신 말씀을 통해 그분의 심장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침내 사랑하는 종현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를 창조하시던 날 그분의 호흡소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2001년 10월

위임목사 김 성 관

누가복음 서론

세 번째 복음서인 누가복음의 저자는 바울의 동반자요 의사였던 누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는 복음의 목격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씀의 목격자요 그 일꾼들로부터” 복음을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써 보내는 것을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들”이라고 부르는 것을 고려하면 복음서를 쓸 당시 그는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으며 오래 전에 있었던 일들을 목격한 사람들과 한 묶음으로 “우리”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교회의 지도적이며 대변자자적인 위치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눅 1:1~4). 누가가 사도들의 조력자였으며 그가 쓴 복음은 모두 그들에게 직접 들은 것이라는 면에서 누가복음은 그 권위와 가치를 처음부터 인정받았습니다.

누가는 복음서를 기록할 때,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면서 왕으로서의 그리스도, 그리스도 백성으로서의 교회의 탄생, 혹은 기독교의 발생과 같은 공동체적 성격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개인의 죄와 고통, 비참함 혹은 죄인을 사랑하고 부르시며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가복음의 주제를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개인에게 임하는 그리스도의 은총과 사랑을 강조한 이유는 아마도 서문에서 밝힌 것처럼 데오빌라는 개인에게 복음의 확실성을 알려주어 그를 기독교인으로 불러들이려는 의도와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가 일어난 일들을 차례대로 써 보내겠다고 서문에서 밝힌 것은 모든 사건이나 말씀들을 시간적인 순서대로 조금도 틀림없이 써 보내겠다는 의도로는 볼 수 없습니다. 누가도 복음서를 자신의 의도와 목적에 필요한 대로 주제별로 정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복음의 구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어느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며 궁극적으로 이 복음이 어디에서 발생하여 어디까지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가 하는 지역성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이러한 암시를 담고 있

는 주님의 명령을 먼저 수록해 두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로마로 진군해 갔다는 것이 사도행전의 구조입니다.

그 앞부분에 해당하는 누가복음은 구약시대의 정점을 알리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합니다. 이 서론부는 예루살렘에서 거행된 예수님의 정결예식과 12살 때의 성전방문으로 일단락됩니다. 예수님의 실제사역은 사역의 준비 후에 갈릴리 지역에서 시작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로 이어지고,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으로 끝이 납니다.

이러한 누가복음 속에는 많은 주제가 들어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보편적 관심, 위대한 공훈, 위대한 용서, 기쁨, 여인들의 안녕에 대한 관심, 철저한 배척, 기도, 성령이 특징을 이루는 복음서입니다. 누가는 이 모든 것을 기록한 후에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의 승천 기사로 그의 복음서를 끝맺고 있습니다.

내용 분해

서론부	1:1-2:52
사역의 준비	3:1-4:13
갈릴리 사역	4:14-9:50
예루살렘으로의 여행	9:51-19:27
예루살렘에서	19:28-24:53

유대인들은 메시야가 오시면 그분이 이방인의 세력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에 다윗의 왕조를 회복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정치적인 나라가 아닌 구원과 심판하는 힘으로 이미 지상에 임하여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그 나라가 완성되는 날에는 신자와 불신자를 완전히 분리하는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인자의 날이란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로서 예수님은 번개가 치듯이 누구에게나 분명히 보이는 모습으로 급작스럽게 재림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자신들의 전통과 관습을 깨뜨리는 예수님을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노아 때의 홍수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통해서 자신이 재림할 때 심판주로서 불신자들을 멸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은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하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한 가족이나 친구나 동료라도 나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주적으로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이나 장소를 찾아다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23절). 내 마음은 요동되지 않고 확고합니까? 주님께서 오실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이 세상 것들에 집착하는 자들에게는 그 날이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 안주함으로 주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지는 않은지요?

인자의 날은 구원과 심판의 날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추석명절을 통하여 오히려 인자의 날을 기대하게 하소서. ②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이 비유는 과부처럼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밤낮 부르짖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백성의 원한을 속히 풀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구원과 심판의 날입니다(7,8절). 그 날에 주께서는 이 세상에서 온갖 고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했던 자기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푸십니다. 나는 내 원통한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어 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해결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부르짖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면서 주님과 지속적으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제자의 표식입니다. 모든 것을 바르게 회복하실 재림의 날을 기다리며 기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재림주로 올 때까지 끈질기게 자신을 신뢰하는 자가 얼마나 되겠느냐 질문하십니다(8절). 이 세상의 환경에 지배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의 재림을 기다린 자들은 자신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는 것 같아 중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시작하십시오. 또한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주님의 성품을 알고 무시로 기도하게 하소서. ② 김창인 원로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사, 남은 생애 동안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삭개오라는 세리는 뜻하지 않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그의 생애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 아래 오셔서 삭개오를 부르시고 그 집에 머물겠다고 자청하셨습니다(5절). 이렇게 귀한 예수님이 오늘 당신의 집에 유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집에 유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죄인의 집을 찾아가셔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죄인이라면 예수님을 맞이하십시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9절에서 '오늘' 삭개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나도 그런 축복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안에 와 계시면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삭개오는 좋은 직업과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직업은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직업이어서 미움을 사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신체적인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고 행동이 있었습니다(3,4절). 나는 주님과 교제를 원하면서도 행동은 멈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얼마나 실제적인 노력이 있습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나고, 잘못을 고백하고 청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청산하고 시정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용서와 함께 구원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기도 제목 / ① 주님을 만나려는 간절함을 주시옵소서. ② 김성관 위임목사님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길 수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선지자들을 거절하고 박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할 것을 예고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셨기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죽여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당연시하지만, 실은 주인 노릇을 하러 오셨으므로 오히려 그분을 영접하고 왕으로 모셨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시종일관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으나 하나님이 다시 실리셨다”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를 받으려고 종들을 여러 번 보내셨습니다. 이 세상은 모두 하나님의 소유요 포도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할 농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종들과 성경말씀을 순종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13절). 아들을 공경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아들을 공경치 않았고 결국은 진멸을 초래합니다(15,16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이십니다. 만일 이 예수님께 거역하거나 대항한다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요즘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혹 거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낸 종들에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이 있을 뿐입니다.

기도 제목 / ①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따르고 순종하게 하소서. ② 충현교회가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앞으로 닥칠 미혹과 재난과 박해에 대한 예고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세상 끝에 있을 일만이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 이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에게도 일어났었고, 지난 이천 년 동안 줄곧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일어나고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일들임을 주의해야 합니다.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것을 예고하셨고, 주후 70년 실현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예언들, 특히 재림의 예언도 정확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가 재난과 박해를 받게 되고 붙들려 가게 되더라도 주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대답할 말과 지혜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전혀 상하지 않는다는 뜻이다기보다 우리를 보호하셔서 구원을 책임지 시겠다는 뜻입니다. 만약 지금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을 의지하고 안심하고 인내하여야 합니다.

여러 어려움 가운데 가장 위험한 것은 미혹입니다(8절). 우리 주변에서 소위 천국에 갔다 왔다는 이들이 한결같이 말하기를 '때가 가까기 때문에 그런 계시와 기회를 주신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로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것들에 동요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사람들은 여러 징조가 보일 때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구속 받을 하나님의 백성은 오히려 기대하게 됩니다.

주님은 환란에서 자신의 백성을 지켜주십니다.

기도 제목 / ① 어려움 가운데 믿음 잃지 않고 인내하게 하소서. ② 교역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귀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성경은 인생을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일정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고향집으로 돌아가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삶은,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죽음을 준비하다 죽음이 다가왔을 때 자유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는 삶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자신이 어떻게 죽으실지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고지를 향하여 달려가셨습니다. 오늘의 본문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죽음을 착실하게 준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가롯 유다와 결탁하여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밀 때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 삼아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고, 자신의 피를 대속의 피로 삼아 새 언약을 세우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피땀 흘려 기도하셨습니다. 단순히 십자가가 두려워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흠어질 제자들, 기승을 부릴 사단의 세력에 안타까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온 인류를 위해 드린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렇게 죽음을 준비하신 후 체포되어 공회 법정에서 서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제자들은 아직 아무 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자리다툼을 했고, 베드로는 끝내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시는 예수님의 죽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고 우리 역시 죽음을 준비하는 길인 것을 기억합시다.

예수의 죽음을 따라 인생을 정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죽음을 잘 준비하는 지혜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② 당회원들이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온전히 섬기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는 그 죽음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 안에서 죽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죽음으로 결산되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 공회는 예수님을 심문한 후 로마 법정에 고소했습니다. 송사하는 무리들은 많았고 결탁하여 업신여기는 사람도 많았지만 예수님을 변호해 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자신의 옳음을 애써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양처럼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빌라도는 심문과정에서 예수가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석방할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의 처형을 원하는 군중들의 협박을 거절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빌라도는 양심에 거슬렸지만 사형을 언도하였고, 예수님께서서는 두 행악자들 사이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전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진 것입니다.

인류의 많은 죽음 중 예수님의 죽음처럼 위대한 죽음은 없습니다. 죄인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고, 인류를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대제사장 적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 안에서 죽음으로 열린 휘장 넘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의 제사였습니다.

기도 제목 / ① 대속의 비밀을 더 깊게 깨닫게 하옵소서 ② 예배를 수종드는 예배위원, 성례위원, 안내위원, 헌금위원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이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일 중 하나는 ‘모른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알지 못하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요,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 알지 못 하면 불안하여 즐거운 여행을 하지 못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인생길을 가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 한다면 얼마나 불행할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시기하는 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 로마 법정에 넘겨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무덤에 예수님을 가둬 둘 수가 없었습니다. 장사한 지 3일만에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 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슬픔에 젖어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도 있었고, 제자들도 평강을 잃은 채 모여 고민하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낙심한 자들에게 손수 나타나셔서 확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엠마오 도상의 낙심하여 돌아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풀어 주셨습니다. 근심 가운데 모여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운 생선을 드시면서 부활을 확실하게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탁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소망을 갖고, 예수님과 함께하여 승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요 소망이 되십니다.

기도 제목 / ① 부활의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게 하옵소서 ② 교회 직원들이 선한 청지기로서 맡은 바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랑일 것입니다. 비단 연인사이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 사회에도 사랑이 없으면 광야와 같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참사랑을 찾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어보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솔로몬의 사랑은 전 인격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술람미 여인의 어떤 것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술람미 여인 자체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인칭 대명사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었습니다. 포도주와도 또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2,3절). 솔로몬의 사랑은 하나가 되려는 사랑이었습니다. 결혼이라는 제도 아래서 하나 되는 거룩한 만남이었습니다(4,7절).

사실 우리는 이러한 사랑의 원형을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인격적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또한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신부로 맞이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신랑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모습대로 인격적이고도, 절대적으로 주님만을 사랑해야 하겠습니까. 이 사랑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고도 아름답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사랑의 모델이 됩니다.

기도 제목 / ①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② 교회 일꾼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각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결혼한 신혼부부가 얼마되지 않아 이혼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둘 사이의 사랑이 깊어졌다기 보다는 깨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참사랑은 성장합니다. 서로를 알아갈수록 서로를 향한 아름다운 마음이 싹트고 서로를 섬겨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사랑은 1장보다 더욱 깊어진 사랑인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1장에서는 사랑을 표현함에 정적입니다. 그러나 2장에 들어서서는 동적인 사랑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로 식물류로 비유했던 사랑이 동물류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8절). 보고 싶은 열정을 산에서 달려오는 노루와 창틈을 엿보는 사슴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표현들이 훨씬 더 활동적입니다. '그가 산에서 달리고', '빨리 넘어 오는구나', '들여다 보고, 엿보는구나', '일어나서 함께 가자', '보게 하라', '듣게 하라' 등.

참 사랑은 깊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표현되어야 합니다.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죽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일까요?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은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오셔서 고난의 길을 걷다가 십자가에 피흘려 돌아가신 사랑입니다. 점점 깊어졌을 뿐만 아니라 온몸으로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보여 주신 사랑처럼 깊어지는 사랑, 표현되는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참 사랑은 깊어지고 표현됩니다.

기도 제목 / 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게 하옵소서 ② 교회의 모든 위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업을 전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어떤 분을 지나치게 사모하여 밤에 그분 꿈을 꾸어 본 적이 있습니까?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무척 사모한 나머지 밤에 꿈을 꾸면서 솔로몬을 찾았습니다. 찾아다니며 헤매었지만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길가는 사람들에게 물어 보았지만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아무 방해받지 않고 오래도록 같이 있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멀리에서 흙먼지를 풍기며 한 떼의 무리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연을 보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 자신이 예루살렘 결혼식장으로 타고 갈 연이었습니다. 솔로몬이 특별히 택한 이스라엘의 용사 60명이나 그 연을 옹위하며 오고 있었습니다. 그 연은 레바논의 나무로 만든 최고급 연이었습니다.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담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온통 사랑이 흘러 넘치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보내온 그 연을 보면서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를 사모하는 마음을 그리고 있습니다. 신부된 교회가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찾아 나서서 주를 만나는 기쁨과 황홀함을 그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우리 주님과 만났을 때 당신의 마음에는 어떠한 사랑이 있었습니까? 이 여인이 신랑을 만난 기쁨은 곧 성도가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의 신랑되십니다.

기도 제목 / ① 신랑되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되게 하소서. ② 찬양대원들이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영적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신랑되신 그리스도가 신부인 교회를 만나서 칭찬을 한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아가서 4장의 내용은 아닐까요? 솔로몬이 솔람미 여인을 만났을 때 신혼의 아름다움으로 그 여인을 보고 온갖 칭찬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하며 신부 자체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육체적인 것만이라기 보다는 마음과 몸을 동일시하는 사고 방식에서 나온 것으로 몸과 마음의 아름다움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문학 양식인 것입니다.

그는 신부의 순결함을 표현하기 위해, 너울 속에 있는 네 눈은 비둘기 같다고 말하고, 네 목은 다윗의 망대같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아름다운 매력과 애교를 표현하기 위해 네 입술은 홍색실같다, 네 뺨은 석류한 썩같다고 말합니다. 신부의 풍요로움을 표현하기 위해 네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무리 염소같다, 털깎인 암양같다, 쌍태를 낳은 양 같다, 쌍태 노루새끼같다고 말합니다. 6절 이하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교회를 초청하고,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신부되신 교회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마음으로 위로하시고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아가서는 이렇게 신부를 사랑하는 신랑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요, 전적으로 부패하고 선에 대하여 무능력해져 버린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은 온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기도 제목 / 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② 교회학교 교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천국일꾼 양성에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아가서는 사랑과 기쁨의 찬가인데 여기서는 슬픈 장면을 보게됩니다. 그녀는 게으름에 빠졌습니다. 신랑이 오는 것을 순간적으로 거절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자기를 떠난 것을 발견하고는 곧 자기의 태도에 대하여 후회합니다. 그리고 남편을 찾아 나섭니다.

이것은 사랑의 갈등을 반영해 줍니다. 사랑의 단맛과 쓴맛의 양면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애굽에서의 해방의 기쁨과 동시에 애굽에서의 고통과 희생을 기념하는 절기인 유월절에 아가서를 낭독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에도, 기쁨이 있고 십자가 지는 고통이 동시에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내가 잘지라도” 라고 말하는 것을 보아 교회로 비유된 술람미 여인이 신앙적으로 게으름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은 깨어있어 견책하며 일으키려고 하지만 나태함에 계속 빠져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때 사랑하는 자의 소리 곧 신랑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려고 하나 마음이 내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문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지만 문을 잠그고 모셔드리지 않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러다가 신랑을 맞아들인 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두 흠모하는 사랑의 노래를 합니다. 성도들은 세상을 따라 가다가 그리스도를 다시 만났을 때 그 은혜의 무한함을 체험하고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랑되신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을 다시는 잃지 않는 신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기도 제목 / ① 주의 은혜를 거절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② 각 교구가 기도와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되어 날로 더욱 부흥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노래한 시로서 대화체로 쓰였습니다. 그러므로 말의 주체가 누구인지 구분이 안되면 이해하기가 좀 난해해 질 수 있습니다. 누구의 말인지 생각하면서 읽으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1절에서 예루살렘 여자들이 신랑을 함께 찾겠다고 말하자, 2절에서 신부가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랑이 어디에 있는지 확실히 알았습니다. 5장에서는 신랑을 잃고 성중 대로에서 찾으려다 봉변만 당했으나, 이제는 그가 자기 동산에 내리간 것을 알았습니다. 만나서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찾으려고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 찾고 있습니까? 주님은 시끄럽고 죄로 물든 세상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동산 교회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4절에서 신랑이 신부에게 사랑의 찬사를 합니다. 11절은 신부가, 13절은 예루살렘 여자들이 14절은 신랑이 서로 화답합니다. 신랑의 말은 매우 부드럽고 온유합니다. 이미 신부의 지난 과오를 모두 용서하고 받아주었습니다. 지난날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여인 중에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서는 자를 용서하고 받아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기뻐하며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서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주님을 찾았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확인했습니까?

주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기도 제목 / ① 주님을 세상에서 찾지 말고 주의 동산에서 만나게 하소서. ② 남녀 전도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사랑하는 자들은 서로의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당신의 가정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사랑하며 노래합니까? 본문은 솔로몬이 솔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노래함으로, 신부가 그에 화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사랑을 받아 응답하는 삶으로 화답해야 하지 않을까요?

1-9절은 신랑이 춤추고 있는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현대의 선정적인 성적 묘사로 보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성경의 묘사는 지순한 사랑이 전제된 표현입니다. 히브리인들은 겉 모습과 속사람의 인격을 일치시킨 사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신부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것도 역시 신부의 외적인 아름다움과 함께 인격에 대한 찬사를 포함한 질적이고 건강한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리와 허리와 가슴과 목과 눈, 코, 머리털까지 그 온 몸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를 사랑함으로 봉사하며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을 보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쁘게 사랑하실 것입니다.

신랑의 사랑을 받는 신부는 10절 이하에서 다시 화답합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리고 한층 더 성숙한 사랑을 노래합니다. 이제는 단둘이 있기를 소망하며 적극적으로 주는 사랑을 노래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인하여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사랑은 우리가 주께 속했음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로 항상 준비하여 주께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드려야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받은 성도는 자신이 주께 속했음을 노래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주님께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게 하소서. ② 이 나라에서 모든 불의와 부패를 소멸시키시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지금까지 두 연인의 구혼시절(1:1-3:5)과 결혼생활(3:6-5:1), 그리고 사랑의 갈등(5:2-6:3)과 회복(6:4-7:14)의 과정을 감각적이면서도 아름다운 비유로 묘사했습니다. 8장은 이러한 과정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면서 사랑의 능력과 승리를 노래합니다.

한때 거친 들을 지나 예루살렘으로 결혼 행진을 한 적이 있던(3:6) 두 사람은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거친 들을 지나 고향으로 감으로써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사랑을 완성했음을 보여줍니다(5절). 6절과 7절은 아가서 전체를 압축하여 요약한 내용이라 할만합니다. 사랑은 죽음처럼 불가항력적이고 무덤처럼 배타적이며 타오르는 불처럼 격정적이고 많은 물과 강처럼 정복할 수 없이 끈질기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랑의 절대성과 능력을 말합니다. 이것이 또한 사랑의 힘과 가치입니다. 실제로 주님의 사랑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합니다(롬 8:2, 고전 15:53-58)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이고 살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최상의 표현을 갈망합니다(1-4절). 솔람미 여인이 남편에 대한 사랑을 외부적으로 표현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드러내야 하겠습니까. 사랑의 표현은 일회성이 아니라 항상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솔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기억하면서 그리스도를 더욱 흠모하고 갈망해야 합니다. 교회는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만을 온전히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삶의 힘이며 살아 있는 능력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주님만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②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정으로 국정에 임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건을 단순하게 기록하면서도 깊은 진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해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여러 방면으로 증거하고 있으며, 중생의 교리를 말하는 영적인 복음서입니다.

1-18절은 로고스의 존재와 로고스의 세상에 대한 계시를 그리는 것으로 해서 요한복음 전체의 내용을 요약합니다. 로고스 개념의 본질은 유대교의 지혜신학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헬라어 로고스는 구약과 유대교적 배경의 '말씀'과 같은 말이면서 동시에 플라톤 철학과 스토아 철학에 중요한 개념으로 쓰인 것입니다. 즉 구약과 유대교적 본질을 아주 정확하고 적절하게 헬라사람들의 사고의 범주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독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이 영원한 예수와 구원의 사건임을 깨닫도록 합니다.

19-51절은 증인들의 증거로서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고(19-34절), 세례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를 메시야로 증거하고(35-46절), 나다나엘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되신 그리스도로 증거합니다(47-51절)

창조와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구원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아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불어 그를 영접하고 그의 제자로 따르는 일은 더욱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실 때, 오직 그리스도를 향해 최고의 가치를 두는 자만이 그를 따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예수의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기도 제목 / ①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② 이 사회가 장애인들을 이해하고 도와 주며 함께 사는 법을 깨닫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앞장에서 요한과 그의 제자들에 의해 간접적으로 증거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본장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표적과 성전을 정화한 사건으로 직접 자신을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십니다(1-12절). 이 사건은 홍이 다 깨져버린 잔치에 예수가 새로운 기쁨을 준다는 표적입니다. 생명이 없는 잔치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죽음 앞에 소망이 끊어진 삶에 영생의 소망을 주신다는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이 표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십니다(13-25절). 주님은 성전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세속적이고 인본주의로 타락한 형식적인 성전을 헐어버리고 언제 어디서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새로운 성전을 예수님이 몸소 짓는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마음이 아플 때, 육신이 피로할 때, 영적으로 갈증을 느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은 생명과 소망을 주시고 삶의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예수님은 기쁨이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기도 제목 / 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소서. ② 이 민족이 지금과 같은 위기의 때에 바른 회개를 함으로 영과 육이 다시 사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물, 공기, 음식 등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필수적인 것 외에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것들에는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것이 있지만 영적인 것도 있습니다.

어느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간 '니고데모'는 구약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지식인이며 물질적으로도 풍족한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지위를 가졌고 도덕적으로도 깨끗하다고 인정받는 유대 최고의 신분인 산헤드린 회원입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으로 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감을 안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가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거듭남(중생)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며 영생을 얻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진리를 가르칩니다. 중생은 지식이나 물질이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 안에 새 생명의 원소를 심고 영혼의 주관적 성향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3:5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참된 신앙인은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썩어 없어지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3:16)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기도 제목 / ① 주님, 가장 귀한 것을 알게 하소서. ② 정은희 선교사(아프리카)가 현지에서 잘 적응하며 뿌리를 내리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예수님의 사역은 군중들을 향한 설교가 있는가 하면 개인과의 인격적인 대화도 있습니다. 또한 택한 백성으로 자부하는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소외 받은 이방인들에게도 스스로없이 복음을 전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보편성을 보여주십니다.

본장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단락(1-26절)은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신 내용이고, 둘째 단락(27-42절)은 사마리아 여인의 증거로 말미암아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주를 믿고 이로써 주께서 크게 기뻐하신 내용이며, 셋째 단락(43-54절)은 갈릴리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내용입니다. 주님은 소외 받은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고 그를 복음의 전도자로 만들었습니다. 죄 많은 한 여인을 통해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또한 고관の子들이 병 고침을 받음으로써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주님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어디든 향하십니다. 소외 받고 천대받는 사마리아인에게도, 왕의 측근에서 부와 명성을 누리는 사람에게도 복음은 차별 없이 전해집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며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또한 예수님을 본받아 누구에게나 기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전해져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나를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②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열심을 회복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장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표적과 예수 자신의 신성에 대한 강화로서, 본서 전체에 일관되게 부각되어 있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제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범했다고 예수를 비방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하나님께 권한을 위임받아 구원과 심판을 이루실 것을 교훈하시고, 유대인들의 외식과 불신앙에 대해 책망하시며 정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은 그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증거였던 것입니다.

본장의 영적 교훈은, 인간이 만든 전통이나 제도 등이 만일 하나님의 진리에 위배된다면 이에 대한 교정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인간의 외적 제도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참된 의도에서 벗어난 인습적 제도들의 해로운 영향력은 실로 독소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연합과 성도간의 연합에 강력한 장애물을 형성하는 것들에 대한 유일한 교정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적 사역과 말씀을 좇아 행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삶의 유일한 지표는 오직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심으로써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였고 하나님과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였으나,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인정치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치 않고 어두움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기 위하여 언제나 선한 양심을 소유해야 합니다.

삶의 유일한 지표는 주님의 가르침과 삶의 모습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주님만이 진리이며 나의 삶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② 권요셉 · 권영일 · 추은희 단기선교사(아프리카)가 원주민 교회 사역, 신학교 및 아랍어 학교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장에는 두 가지 표적과 그 표적에 따른 강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표적 배후에 등장하는 예수가 공식적인 자기 선언과 제자들의 반응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예수는 구약 성경의 성취이자 이스라엘이 고대하는 메시아임에는 틀림없지만 이스라엘의 민족주의적 열광주의를 만족시키는 메시아는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는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군림하기를 거부하신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증거하셨습니다. 이는 모세의 광야에서 있었던 만나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모세보다 위대한 메시아임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기적 속에 담겨 있는 참된 의미를 깨닫기보다는 기적의 결과에 관심을 갖곤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킬 권능이 있는 예수 자신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하여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심을 교훈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고 예수를 왕으로 모시려고 시도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영의 양식을 주기 위해 오셨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의 말씀에 많은 자들이 그를 떠났지만 열두 제자는 예수께 남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양식을 위해 일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영의 양식을 위하여 일해야 합니다. 육의 양식만을 위하여 예수를 좇아 다니던 어리석은 자들과 같이 말고 베드로와 같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지속적으로 소망하게 하소서. ② 이명하·김서영·정현주 단기선교사(방글라데시)가 남은 5개월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동역자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예수께서는 초막절이 되자 안전한 장소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사역의 장소를 옮겼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대적들의 위협을 정면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유대인들의 살의를 충분히 감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때부터(초막절) 예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실 유월절까지는 반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이 짧은 기간 동안 유대인들의 종교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영적 진리를 가급적 많이 선포하셔야 했습니다. 초막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방랑 생활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 지켰지만, 본래는 농경 생활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초막절은 곡식과 포도와 올리브 추수가 끝난 후 농부들의 일이 종료되었음을 축하했던 절기로서 '수장절'이라고도 불렸으며(출 23:16), '여호와와 절기'(레 23:39)라고도 일컬어졌습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가운데서 유월절이 최초로 돌아오고 그 다음 칠칠절이 지켜지며 이어서 초막절이 마지막으로 지켜집니다. 초막절은 7일간 계속되었으며 제8일째 되는 날에는 절기 마감을 기념하는 대성회로 모여 하나님께 화제를 드렸습니다. 이렇듯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를 계속적으로 기억하기 위해 제정한 절기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최종적인 승리의 잔치를 보여 줍니다. 한해의 농사를 마감하고 그 풍요한 소산을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였듯이, 새로운 나라에서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지상에서의 모든 수고와 환난을 마감하고 구원이라는 대가를 받아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임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를 계속적으로 기억합시다.

기도 제목 / 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② 이소영 · 최은아 평신도 단기선교사(스리랑카)가 영육이 강건하고 현지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예수께서는 여전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더욱 당신 자신을 확연히 계시하는데 힘쓰십니다. 본장의 간음한 여인 이야기는 계속되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계획된 음모의 일환으로서, 긴장과 충돌의 분위기를 극적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인간보다 율법을 우선으로 생각했던 유대교 지도자들에 반하여 예수는 율법보다 인간을 더 중요시하고 계심이 잘 드러난 사건이기도 합니다. 본장의 신학적 주제를 발견한다면,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어떻게 해서든지 체포할 충분한 근거를 얻고자 율무를 놓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율법의 파괴자요, 하나님의 왕권을 침해하는 죄인으로 몰아 넣으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음모가 구체화된 것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예수께 끌고 온 일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간음하다 현장에서 들키면 여자뿐 아니라 남자까지도 돌로 쳐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여자만을 예수께로 끌고 왔습니다. 그들이 노리는 것은 예수가 여인을 용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율법의 권위와 가치를 무시하게 되거나 여인에게 죽음을 선고함으로써 자신의 사랑의 메시지는 포기하게 하는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율법의 본질적인 의미로 이 사건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해서 인간이 율법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인간을 위해 있음을 밝히셨고,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음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율법의 본질은 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율법의 권위와 사랑의 메시지를 조화있게 사육케 하소서. ② 협력선교사들(아프리카의 강기엽, 이집트의 허요셉)이 지속적으로 일하며 구체적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장에는 소경 치유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빛의 강화를 계속하시며, 곧이어 소경에게 빛을 주시는 표적을 행하심으로 강화에 대한 구체적 예증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소경을 고치신 예수의 표적은 표면적으로 상당히 경이로운 것이었을 뿐 아니라 그것은 빛과 어두움을 극명하게 갈라놓는 행위였습니다. 즉 표적을 불신하는 자들은 예수를 대적하는 어두움의 세력에 속한 자들이요, 반면 표적을 믿는 자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빛의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영의 눈을 뜨지 못해 빛이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영적인 소경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소경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믿음뿐입니다. 예수님은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의 눈을 밝히셨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신이 생명의 빛되심을 계시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예수의 빛이 드러나자 어두움에 속한 자들의 핍박이 더욱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의 역사를 부정하며 예수님을 정죄하였습니다. 영적인 눈먼 자들은 진리를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대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이 눈으로는 볼 수 있지만 영적인 눈이 멀어서 진리를 보지 못하여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 영적 소경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영안을 뜨게 하심으로써 믿는 자들은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빛의 자녀된 성도는 언제나 빛이신 예수님을 좇아 진리의 길로 행함으로써 세상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빛으로서 우리의 눈을 밝히십니다.

기도 제목 / ① 죄로 인해 어두워진 눈을 밝히 뜨게하여 주옵소서. ② LMTC(평신도 선교훈련원)의 교육을 통해 더 많은 평신도선교사들이 양성되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장은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키는 여러 가지 언어 수식을 반복해서 사용하시면서도 상호 연관성은 있으나 별개의 개념을 가지는 은유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예로서 '선한 목자'라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양의 문'이라고 표현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신학적인 주제를 발견한다면 '양의 문'이라 하겠습니다. 본장에 사용된 비유는 목자의 일상생활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아침이면 양떼들을 양의 문을 통해 우리에서 불러내어 풀을 먹이고 다시 저녁 무렵에는 우리에 안전하게 데려갑니다.

본 장에서의 양의 문에 대한 첫 번째 설명은 8절에 있습니다. 양의 문을 회피하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앞에 있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을 지칭합니다. 그들은 문 되신 예수를 거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그들이 기대한 메시야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메시야는 정치적이고 권력적인 존재였습니다. 문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다 절도요 강도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는 모든 인류의 구원의 통로이십니다. 따라서 그로 말미암지 않는 자는 오로지 죽음과 멸망뿐입니다. 그는 양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며, 구원을 주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양의 문은 곧 생명의 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 선한 목자로 비유하시며 자신의 구속사역을 설명하셨습니다. 이는 양을 지키고 인도하며 심지어는 양을 위해 자기 생명까지라도 주는 목자로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자신의 구속 사역을 비유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의 문이십니다.

기도 제목 / ① 선한 목자 주님의 양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장에 나타난 나사로의 부활사건은 예수님의 공식적인 일곱 가지 표적들 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것이고, 표적의 성격상 가장 위대하며, 원래 요한이 전달하고자 했던 예수의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본장은 생명의 원천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하게 부각시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믿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장에서 영적 교훈을 발견한다면,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간구하는 바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미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알았기 때문에 그가 구하는 것들은 모두 아버지의 뜻에 따른 것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는 항상 아들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입니다. 성도들은 바로 이와 같은 예수의 기도에서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자세를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나사로의 집에 찾아가셨습니다. 이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적을 통해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의 주되심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의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는 이들도 많이 생겼지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예수를 잡아죽이려는 음모를 구체화시킵니다.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어 자신이 생명과 부활의 주이심을 증거 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를 반대하는 세력의 박해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는 진리가 드러날수록 진리를 싫어하는 악한 세력의 반대가 더욱 심해짐을 보여줍니다. 성도는 진리 가운데 행하므로 닥쳐오는 모든 악한 세력의 핍박에 굴하지 말고 예수의 가신 진리의 길을 쫓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예수의 가신 진리의 길을 쫓아가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생명과 부활의 주님을 증거케 하소서. ② 농어촌의 교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날로 부흥하여 민족 복음화의 산실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에 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의 사역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로 세상에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신의 사명을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성취하실 ‘그때’가 되었으므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본 장에서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구약 성경의 예언에 대한 성취임을 나타내고자 하였습니다. 수천 년 전에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성취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이 절대적인 신적 권위를 갖고 있는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본장에서의 영적 교훈은, 호산나(이제 구원하소서!)를 외치면서 예수를 열렬히 환영한 군중의 함성은 구약의 선지자들에 의해 예언된 메시아, 바로 그분이 오셨으므로 더 이상 지체 말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달라는 민족적인 간청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군중은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를 단지 자신들이 기대한 정치적, 민족적 소망을 이뤄 줄 메시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장차 자기들의 기대가 무너졌을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았던 무리로 돌변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혹시 자신들의 신앙이 당시의 군중과 동일 선상에 있지 않은 지 반성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개인적 영광을 위해 예수를 믿는다면,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신앙이며, 언제든지 예수를 배신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의 개인적 영광을 위해 예수를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게 도와주소서. ② 충현의 교회학교를 통하여 천국일꾼이 일어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장에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함께 하신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학적인 주제를 찾아본다면 그것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입니다. 예수께서는 체포되시기 하루 전인 목요일 저녁 마가의 다락방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서로 높아지려고 다투는 제자들에게 섬김의 도를 몸소 행동으로 보이신 기사입니다. 이는 신학적, 윤리적 의미가 모두 포함된 사건입니다. 주님의 섬김을 받지 않으면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주의 종의 길을 가는 제자는 당연한 귀결로서 남을 섬겨야함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섬기신 것은 낮아지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기까지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며 섬겨야 함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세족식에 대해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본문은 예수의 성만찬 제정 이야기를 대신하는 별개의 기사가 아니라 성만찬에 관한 좀 더 발전된 이야기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행위는 당신의 피가 성도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 준다고 하는 성례전적 암시를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가까이 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새 계명을 명하셨습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유다의 배반과 베드로의 자인에 대한 부인을 예고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앞둔 예수의 교훈과 예언은 제자들의 사명과 앞일을 밝히 보여 준 것입니다. 새 계명을 행함으로써 예수의 제자됨을 증명할 수 있다는 말씀은 진정한 제자의 도가 무엇인가를 교훈해 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을 새계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제목 / ① 섬김의 도를 먼저 실천하게 하소서. ② 5부 예배를 통해 주의 청년들이 복음에 매이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장에 수록된 예수님의 말씀은 16장까지 계속되는 그리스도의 마지막 강화 가운데 첫 번째 것으로서 이는 '다락방 강화' 라고도 불리며, 일명 예수의 '고별 설교' 라고도 불립니다. 예수께서는 이 강화를 통하여 자신의 정체와 기원을 명확하게 계시하고 있고 보혜사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자신의 정체와 기원을 명확하게 계시하고 있으며 또한 보혜사 성령의 강림을 약속하심으로 낙심하는 제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계십니다.

본장에서 신학적 주제로서는 '보혜사'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서에서는 보혜사 성령을 공관복음보다 비중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신약시대를 시작하게 하는 성령의 강림이 본서에 확연히 약속된 것은 매우 커다란 의의를 지니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 있는 은혜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보혜사로 번역된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는 '곁에' 라는 뜻과 '부른다' 라는 의미가 합성된 것으로서 '남을 돕기 위해 불러 온 자' 라는 뜻입니다. 보혜사의 역할에 대하여는 본서 14-16장의 예수의 고별 설교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보혜사께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위탁받아 그 일들을 증거하고 수행하십니다. 그는 세상에 대해 예수를 변호하며 세상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거부한 죄를 깨닫게 하고 또한 미래의 종말론적 심판을 실현함으로서 불신의 세계를 밝히 드러내십니다. 또한 보혜사는 '진리의 영' 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는 신자들이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돌보십니다.

성령님은 성도의 믿음과 사랑 속에서 새 계명을 지키게 하십니다.

기도 제목 / ① 진리의 영이시여, 늘 내 곁에 계시옵소서. ② 이 땅에 소외받는 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자신과 성도들의 관계를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자신은 포도나무이며, 성도들은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에는 참으로 많은 귀한 교훈이 담겨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심으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도열매를 수확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포도나무를 심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는데, 바로 열매를 얻기 위함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가 필요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려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인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떠나서는 구원뿐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무익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열매는 가지에서 맺힌다는 사실입니다. 포도열매는 나무에서 맺히는 것이 아니라 가지에서 열립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상급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시고 맛있는 들포도가 아니라 탐스럽고 잘 익은 참포도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농부와 포도나무와 포도열매는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예수 안에 머물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필요합니다.
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제 1 과

의로운 해

찬송 / 358장(아침해가 돋을 때)

본문 / 말 4:1-3

(복습을 통해서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시고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들어가면서(서론)

바벨론 포로로부터 회복된 이후 몇 년이 흐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시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포로생활을 자초했던 때와 동일하게 범 죄 하게 된 것입니다. 예물을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일을 소홀히 여겼으며, 믿지 않는 자들과 혼인하는 등,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심판과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말라기서를 끝으로 400여 년 동안의 침묵시대가 오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려지지 않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질책,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커다란 주제를 가지고 여섯 개의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①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1:1-1:5) ②제사장에 대한 책망(1:6-2:9) ③백성들에 대한 책망(2:10-3:15) ④의인은 기억될 것(3:16-1:18) ⑤악인과 의인의 결국(4:1-4:3) ⑥메시아의 도래(4:4-4: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상과 같은 말라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옆두에 두고 말라기 4:2에 나타난 '의로운 해'에 대하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머물면서(본론)

1. 먼저 오늘의 본문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보십시오.

① 1절 -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맞게 되는 결과

② 2절 - '여호와와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맞게 되는 결과

③ 3절 - 의인과 악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

2. 다음 주일 설교('의로운 해')를 읽으시고 다음의 질문을 나누어 보십시오.

① 2절의 '만군의 여호와와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비추어 질까요?

② 2절의 '의로운 해'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계 22:20 참조)

③ 2절에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요일1:9 참조)

④ 죄가 용서받으면 마음속에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사61:10 참조)

나가면서(결론)

1.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악인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의인으로 구별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시는 기준이 바로 믿음의 선택이라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기준이 아닙니다.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며 교만과 악을 행하는 자를 말하고, 의인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로서, 즉 예수의 이름과 그의 재림을 믿는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선택하셨습니까? 예수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믿지 못하십니까? 입술로만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떠한 믿음의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
2. 예수는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삶에 진정으로 영원토록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현재 어떤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까? 그리고 미래에는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리라고 믿으십니까?

제목 :

본문 :

제 2 과

예수를 뵈옵고자

찬송 / 235장(주 예수 크신 사랑)

본문 / 요 12:20, 21

(복습을 통해서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시고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들어가면서(서론)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오자, 헬라인 몇 사람이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습니다(20절). 이 헬라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참되신 하나님이며, 모든 다른 신은 헛된 우상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비록 그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이방인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성소 밖에 특별히 마련된 '이방인의 뜰'에서 예배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조건 때문에 마음이 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참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왔기 때문입니다. 가지각색의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동안, 그 헬라인들은 메시아로 인하여 벌어진 일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야곱, 다윗,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였던 메시아에 대해 정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은 갈릴리 지역의 벳세다라는 동네에서 온 빌립에게 다가간 것입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뵈옵고자 하나이다" (21절).

그들의 품고 있는 소원은 예수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이미 예수에 대해 많은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이 매우 친숙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어서 이미 메시아를 믿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기대하였기 때문에 그를 만나고 싶어한 것입니다.

머물면서(본론)

1. 먼저 오늘의 본문 내용을 아래의 사항에 따라 요약 정리하여 보십시오.

① 20절 - 사건의 발단

② 21절 - 사건의 내용

③ 22절 - 사건의 전개

④ 23절 - 사건의 결말

2. 다음 주일 설교(‘예수를 뵈옵고자’)를 읽으시고 다음의 질문을 나누어 보십시오.

① 예수에 대해 알아보려는 헬라인들의 의지는 실천적인 것이었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소문을 통해서 들었던 예수에 대해 알아보려고 일부러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알기 위해 어떤 믿음의 실천을 하십니까?

② 헬라인들은 예수의 설교를 듣고 싶어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려지게 될 하나님의 계시를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설교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십니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설교의 내용이 내게 필요한 것이길 바라십니까? (전자의 태도는 하나님 중심이요, 후자의 태도는 자기 중심입니다. 솔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③ 헬라인들은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심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보자란 무엇일까요?

④ 바울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죄인이므로 직접 볼 수가 없었던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심지어 이방인이었던 헬라인까지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방인들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무엇일까요?(행 10:45, 11:18, 13:48, 롬 3:29, 엡 3:6)

나가면서(결론)

1. 어떤 이들은 설교를 들을 때, 실제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나 인정하고 싶은 것만 취하고 나머지는 무시합니다. 만일 설교가 나의 필요나 욕구를 채워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설교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는 '청중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설교자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자신의 뜻을 선포하는 성령의 사역' 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성경을 잘 해석하고 전달해야 하며, 청중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포기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즉, 설교자의 선포도 중요하지만, 듣는 청중의 자세도 매우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옥토와 같은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
2.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죄의 멍에와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청을 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뵈옵고자 하나이다!” 즉 지식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의 인격적 만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을 안다고 해서 그리스도와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만난다는 것은 주님의 인격과 나의 인격이 부딪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인격과 죄로 가득하고 수치스런 나의 인격이 부딪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충돌 속에서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제목 :

본문 :

제 3 과

.....

죄로 물든 민족

찬송 / 383장(환난과 핍박 중에도)

본문 / 왕상 21:1-14

(복습을 통해서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시고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들어가면서(서론)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22년 동안 다스리던 아합 왕은 매우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기는 국가적으로 매우 부유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 있어서 부유했었고, 다른 나라들과도 좋은 외교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아합 왕의 지혜는 스스로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하는데 사용되어졌습니다. 시돈은 이스라엘의 교역을 확장시키는데 도움을 준 항구 도시였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결혼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종교적인 융성을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시돈의 종교, 즉 바알, 아세라 그리고 많은 이방의 신들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종류의 서로 다른 신전들을 건축했고, 하나님과 이방의 신들을 함께 섬겼습니

다. 다른 신들은 그들에게 세상적인 축복을 불러왔고, 이스라엘은 세상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부유한 위치로 인해 아합 왕을 신임했습니다. 그들은 아합 왕이 나라를 잘 이끌고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이스라엘의 부유한 이유가 아합 왕의 지도력에 의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한 왕의 권위와 부드러운 지도력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존경하게 만들었습니다.

머물면서(본론)

1. 먼저 오늘의 본문 내용을 아래의 사항에 따라 요약 정리하여 보십시오.

① 1절~3절 - 포도원과 아합

② 4절~10절 - 이세벨의 꾸민 음모

③ 11절~14절 - 나봇의 죽음

2. 다음 주일 설교(‘죄로 물든 민족’)를 읽으시고 다음의 질문을 나누어 보십시오.

-
- ① 오늘의 본문에서 아합 왕이 나봇에게 포도원의 값을 지불하고 소유하려는 광경이 나옵니다(1절~3절). 그러나 나봇이 거절하는데(4절), 도대체 그러한 제의를 거절한 이유가 무엇일까요(레 25:23)?
- ② 아합 왕이 나봇의 반응에 대해 근심하고 답답함을 느끼며 식사를 거르자, 아내인 이세벨은 격려하면서 포도원을 갖게 해주겠다고 합니다(4절~7절). 그리고 그녀는 즉시로 계락을 꾸미는데, 아합 왕은 잘못된 것인 줄을 알면서도 태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 ③ 이세벨은 나봇으로부터 포도원을 조금도 힘들이지 않고 빼앗아 버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 ④ 이세벨의 계략에 따라 장로들과 귀인들은 나봇을 함정에 빠뜨리게 되었습니다. 장로들과 귀인들은 이세벨의 꾀계가 악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그녀의 말을 따랐을까요?(롬 3:18)
- ⑤ 여러분들의 생각에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장로와 귀인들의 모습 속에서 누구의 죄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가면서(결론)

1. 이스라엘 민족의 총체적인 타락

아함으로 인한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은 굳이 영적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악한 죄를 먹고 마시는 타락은 삶 속에서도 극에 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땅에 떨어졌으며, 사회의 기준과 법은 왕의 권력과 힘에 의해 결정되어질 뿐이었습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개의치 않습니다.

① 아함 왕은 어떤 면에서 타락했습니까?

② 이세벨은 어떤 면에서 타락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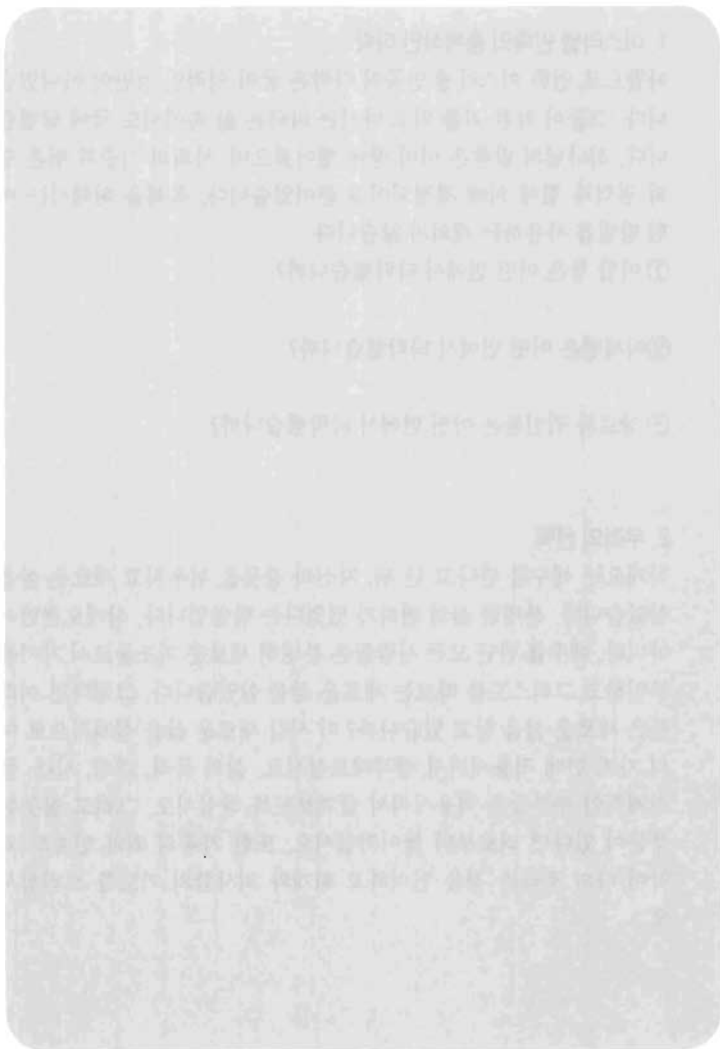
③ 장로와 귀인들은 어떤 면에서 타락했습니까?

2. 우리의 선택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고 난 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분명한 삶의 변화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삭개오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은 분명히 새로운 피조물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시간 새로운 삶을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 적용시켜서 생각해보십시오. 삶의 목적, 재정, 시간, 등 실제적인 부분들을 적용시켜서 살펴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죄로부터 돌이키십시오. 또한 가족의 죄와 민족의 죄악이 나의 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회개와 죄사함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제목 :

본문 :



제 4 과

.....

주께서 나를 지으심이

찬송 / 417장(큰 죄에 빠진 나를)

본문 / 시 139:13~16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시고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들어가면서(서론)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내가 존재할 수 있게 된 것은 부모님이 낳아주셨기 때문이다'라는 혈통적인 개념에 매여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적인 가치관은 다릅니다. 우리의 기원은 하나님 때문이며, 부모님은 단순히 출생을 위한 통로라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에 대해서 반드시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나를 통해서 출생한 자녀들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그리고 부모가 된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달하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태어나게 하신 통로가 부모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며, 하나님의 뜻이 부모를 통해서 전달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으심은 육신에 관계된 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거듭남'이라는 새롭고 놀라운 영적인 탄생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의 출생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새롭게 형성되는 새로운 탄생의 신비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인 다윗의 고백을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각도에서 말씀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머물면서(본론)

1. 먼저 오늘의 본문 내용을 아래의 사항에 따라 요약 정리하여 보십시오.

① 1절~ 6절 -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무엇을 아시는가?

② 7절~ 12절 - 우리는 왜 하나님의 눈에서 피할 수 없는가?

③ 13절~ 16절 - 하나님은 왜 나의 주인이신가?

2. 다음 주일 설교(‘주께서 나를 지으심이’)를 읽으시고 다음의 질문을 나누어 보십시오.

① 다윗은 14절에서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하여 ‘신묘막측’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신묘막측’하다는 말은 ‘경외스럽고 놀랍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드신 것에 대하여 어떤 표현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②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던 인간이 새롭게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로 태어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입니다(엡 2:13). 즉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다’는 것입니다(롬 5:10). 그렇다면 ‘화목’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설교문의 두 번째 문단을 통해서 살펴보십시오.

③ 하나님과 화목된 신자들은 하나님의 후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후사에 대하여 다음의 물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 하나님의 후사란 무엇인가(벧전 1:4)?

㉡ 하나님의 후사란 어떻게 얻어지는 것인가(딤후 3:7)?

㉢ 하나님의 후사로서 감당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롬 8:17)?

④ 하나님과 화목되고, 후사가 된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신의 성품에 참여함에 대하여 다음의 질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 신의 성품이란 무엇인가(벧후 1:4, 례 11:45, 요 17:17)?

㉡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누구입니까(히 3:14)?

⑤ 하나님과 화목되고, 후사가 되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은 영원한 왕들과 제사장이 됩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는 것에 대하여 다음의 질문들을 통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 계시록 1:5,6에 기록된 것처럼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그 직분을 어떻게 실제로 적용할 수 있습니까? 즉, 현재(재림 前)와 미래(재림 後)에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적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 계시록 5:10과 20:6에 나타난 것처럼 ‘그리스도의 권세를 위임 받은 왕’으로서 감당해야 할 직분을 실제로 적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즉, 현재(재림 前)와 미래(재림 後)에 왕으로서의 직분을 적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나가면서(결론)

1. 나를 지으시고, 나를 아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주인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즉, 전인적(全人的)인 면에 있어서 참된 주인입니다. 그는 우리를 손수 만드셨을 뿐 아니라, 그의 생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조성하셨고,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거듭남이라는 '새창조'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후사로 삼으시고, 신성에 참여하게 하셨으며, 제사장과 왕이라는 직분을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신 높은 위치로 상승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아시며,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주인이십니다.

2. 우리의 선택

이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의지를 아셨다면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선택해야 할 차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자발적이고 선택하도록 하셨습니다.

- ① 예수의 피를 의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시겠습니까?

② 주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유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③ 모든 소유에 대해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이 주인이 되시겠습니까?

제목 :

본문 :

남성도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성경봉독	인도자와 교독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필요합니다.
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제 38 과

의의 병기

찬 송 / 400장
읽을 말씀 / 롬 6:12-14
외울 말씀 / 롬 6:13

다음의 말씀을 읽어 보십시오.

롬 6:12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 노릇 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롬 6:13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 롬 6:12-14에서 볼 수 있는 두 종류의 병기는 어떤 것입니까?

-
2. 당신의 삶을 돌아볼 때에 두 종류의 병기 가운데 어떤 것에 가까웠다고 생각하십니까?

불의의 병기

3. 아래의 말씀들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불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3-1.

마 5:27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마 5:28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3-2.

요일 3:15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3-3.

약 3:8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약 3:9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3-4.

마 2:16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
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
세히 알아본 그 때를 표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3-5

막 6:24 저가 나가서 그 어미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미
가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3-6.

막 6:25 저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
반에 담아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한대

4. 당신의 삶의 주변에서 인간이 악의 병기로 쓰이는 모습을 본 것이
있다면 나누어봅시다. 그리고 당신 자신은 어떻습니까?

외의 병기

5. 다음의 말씀을 통하여 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한지 살펴보십시오.

5-1

빌 2:19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램은 너희 사정을 앞으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빌 2:20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빌 2:21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빌 2:22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5-2.

빌 2:29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빌 2:30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5-3.

- 행 3:6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행 3:7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5-4.

- 행 9:39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겹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어떻게 의의 병기가 되는가?

6. 다음의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의의 병기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 보십시오.

6-1.

- 롬 3:23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롬 3:24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6-2.

- 마 26:33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마 26:34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마 26:35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행 2:1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행 2:2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앓은 온 집에 가득하며

행 2:3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
더니

행 2:4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행 2:14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행 2:15 때가 제 삼 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행 4:19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
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행 4:20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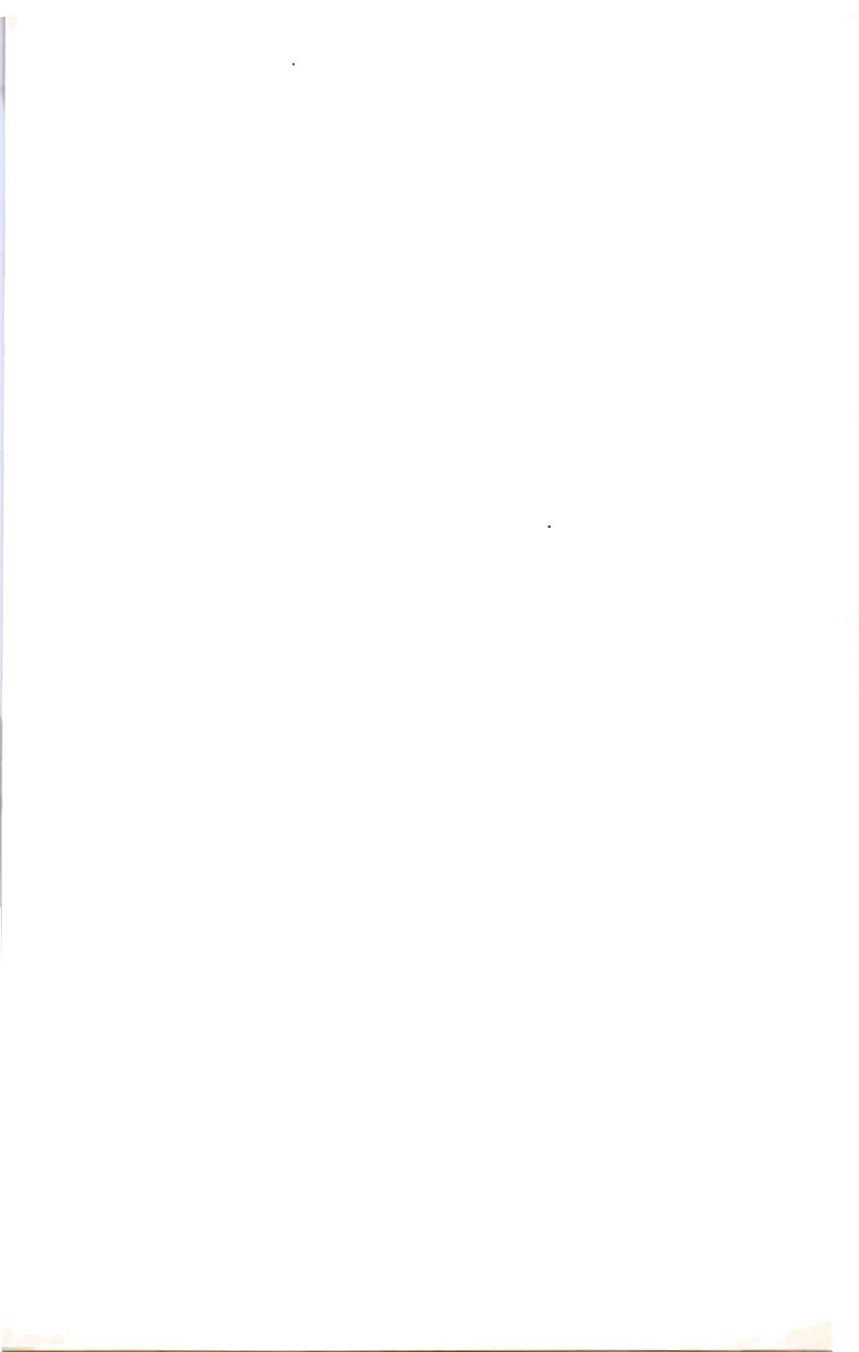
6-3

엡 6:10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엡 6:11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죄인으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위하여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호언장담 하였지만 그것이 그를 지켜 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주님을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순절의 성령 충만을 입음으로 의의 병기로 무장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위협과 죽음을 두려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기를 원한다면 주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불의의 병기가 아닌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쓰임을 받을 것을 소망해야 하겠습니다.

7. 오늘 말씀에 통하여 깨닫고 새롭게 결단한 것과 각자의 기도제목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가정예배 안내

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 낭독	
기 도	다같이
주기도	다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

송현의 만나 · 2001년 10월호 · 발행인 / 김성관 · 편집인 / 노광현
· 집필진 / 만나 : 정진호(1-5일), 서광진(6-10일), 정해성(11-15일)목사
박인기(16-20일), 여성기(21-31일)목사
· 구역예배공과 : 김동하 목사 / 남성구역예배공과 : 이준경 목사
· 발행처 / 송현교회 출판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10) [비매품]
